

힘겨운 때 평정 되찾아준 위안의 책

CBS 아나운서 이효연씨가 뽑은 안셀름 그윈의 《참 소중한 나》

아침에 스치듯 흘러들은 멜로디가 하루 종일 입안을 맴돌 때가 있다. 음악을 들은 건 잠깐이지만 멜로디의 잔상은 오래도록 남아 무심히 길을 걸을 때, 따끈한 차 한잔을 마주했을 때나 일을 할 때도 불쑥불쑥 입가를 찾아온다. 라디오 마니아라면 이런 경험이 한번쯤은 있지 않았을까. CBS 아나운서 이효연씨(32)는 바로 이른 아침부터 청취자들에게 콧노래를 '전염' 시키는 사람이다.

아나운서 이효연? 비주얼한 TV 화면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겐 조금 낯선 이름이다. 하지만 'FM 매거진' 진행자 하면 그제야 고개를 끄덕인다. 이씨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93.9Mhz를 통해 청취자들에게 상쾌한 아침을 배달한다. 그가 청취자가 아닌 독자에게 배달하고 싶다면 뽑은 책은 독일 베네딕트 수도회 사제를 역임한 안셀름 그윈의 글모음집 《참 소중한 나》(전현호, 성바오로)다. 대뜸 누가 기독교방송 아나운서 아니랄까봐 이 책을 골랐을까 싶었는데, 그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책이란다.

"처음 읽었을 땐 흔히 마주치는 철학자, 명상가들의 이야기려니 했어요. 그래서 조금 딱딱하고 투박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 곱씹다보니 절그릇 같은 투박함 속에 속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이씨가 이 책을 만난 건 지난 여름이었다. 직장 내 파업이 장기화되고, 옆친 데 덮친 격으로 개인적인 어려움이 겹쳐 힘겨운 나날을 보내던 때였다. 그런 힘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서적 안정이 힘겨운 일상에 얼마나 큰 에너지가 되는지 깨닫게 됐어요."

든 시기를 건디게 해준 게 바로 종교에 귀의한 것이었고, 이 책은 막 세례식을 마친 그에게 시아버지가 선물한 책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서적 안정이 힘겨운 일상에 얼마나 큰 에너지가 되는지 깨닫게 됐어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건디게 해준 친구 같은 책이죠."

그를 만나보니 라디오의 음성만으로 짐작했던 차분한 이미지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톡톡 튀는 감성과 재치 있는 입담은 도리어 그에 대한 선입견을 순순간에 무너뜨린다. 그렇다면 방송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내숭? 그러자 그는 예의 그 환한 웃음을 지으며 그건 'FM 매거진'만의 차별화 전략이라고 말한다. 그래서일까, 그가 방송에서 내세운 전략은 싱싱한 뉴스와 유익한 정보, 친구 같은 편안함이다. — 박옥순 기자

다름에서 디자인은 행복을 느낀다

2002 디자인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시작은 언제나 새마음으로 하듯
이제 더욱 새로워진 각오로 준비한 디자인의 리더,
다름과 함께 즐거운 새해를 출발하십시오.

인재를 찾습니다

노련하고 의욕많은 기획자와
불도저 정신의 신인 카피라이터를 찾고 있습니다.
총원시까지 모집하며 접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외국어 능통자 우대).

dp design partner darum

다름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64-65 K&J빌딩(2F)
TEL 02_325_6260_1, FAX 02_325_0944, E-mail darumman@korea.com